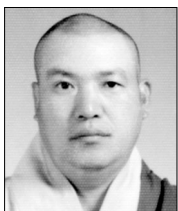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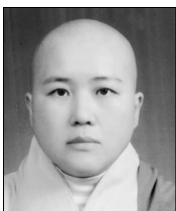
본말사 주지 인사



<불교신문>은 “종지와 종책의 선양을 위한 종단 언론시책과 홍보업무 및 포교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기관지령’에 근거해 조계종 총무원 총무회의의 결의와 총무원장 스님 결재를 득한 전국 본말사 주지 인사 내용을 이번호부터 소개합니다(교구본사 순). 지면 사정이 있을 경우 부득이 하게 다음호에 이어 소개할 예정입니다. 임명일(1.1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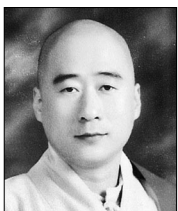
도서스님
서울 호국지장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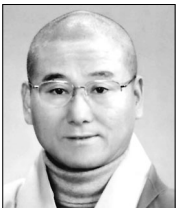
원광스님
부산 청학선사



무애스님
경주 정토법당



지견스님
이천 연옥사



성직스님
안양 염불사



정견스님
평택 심복사



성범스님
화성 만의사



선래스님
안성 용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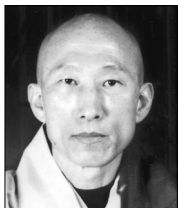
성장스님
평택 용화사



진산스님
의정부 호암사



혜정스님
하남 자비사



만인스님
아산 봉수사



묘수스님
김천 구화사



정수스님
대구 봇다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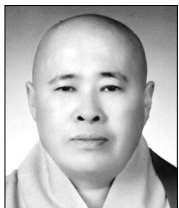
대기스님
합천 통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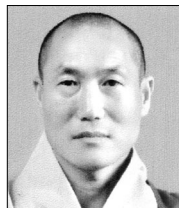
범정스님
경산 불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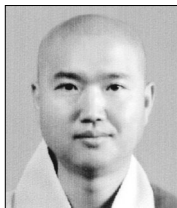
진성스님
경주 원각사
(불국사 인강포교당)



원명스님
경주 천년사



범준스님
황양 벽송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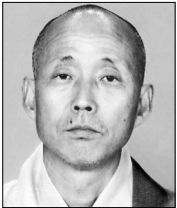
일서스님
황양 상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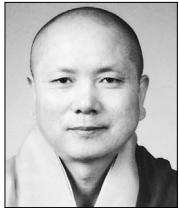
정각스님
대구 수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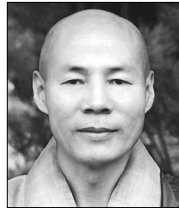
지광스님
진주 월명암



진석스님
신청 안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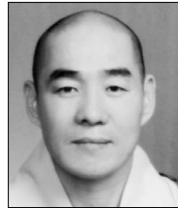
원행스님
안동 용수사



지견스님
밀양 홍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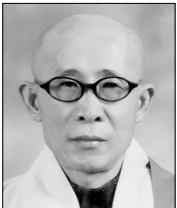
주봉스님
대구 보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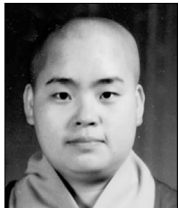
성안스님
인천 보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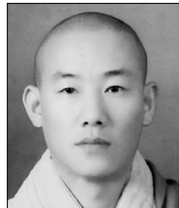
보문스님
의령 운암사



현고스님
양산 용화사



여안스님
울산 화정사



각문스님
성남 연화사



남명스님
제천 운조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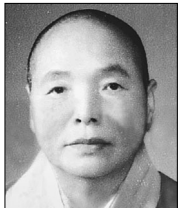
동수스님
원주 정수사



묘주스님
익산 연국사



정연스님
나주 불화사



상룡스님
광주 개신사



연담스님
서귀포 천제사



일면스님
기평 축령사

구독신청 (02)730-4488
광고문의 (02)730-4490
한정의 불교신문
한사람의 포교사

입적 환속 제적시 재산 종단귀속

개인 명의의 스님 재산을 종단에 출연하는 종령이 만들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21일 열린 총무원 회의에서 ‘스님들이 입적·환속·제적됐을 경우 개인 명의의 재산을 종단에 출연하도록’ 하는 종령을 제정했다. 종령 명칭은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이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인 ‘승려분한신고 시행규정’과 ‘본말사 주지 인사규정’을 개정했다.

이날 제정된 종령에 따라 스님들은 개인 명의의 재산을 종단에 출연해야 한다. 종단 소속 스님들은 의무사항이며, 자필 유언장, 사인 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종단에 제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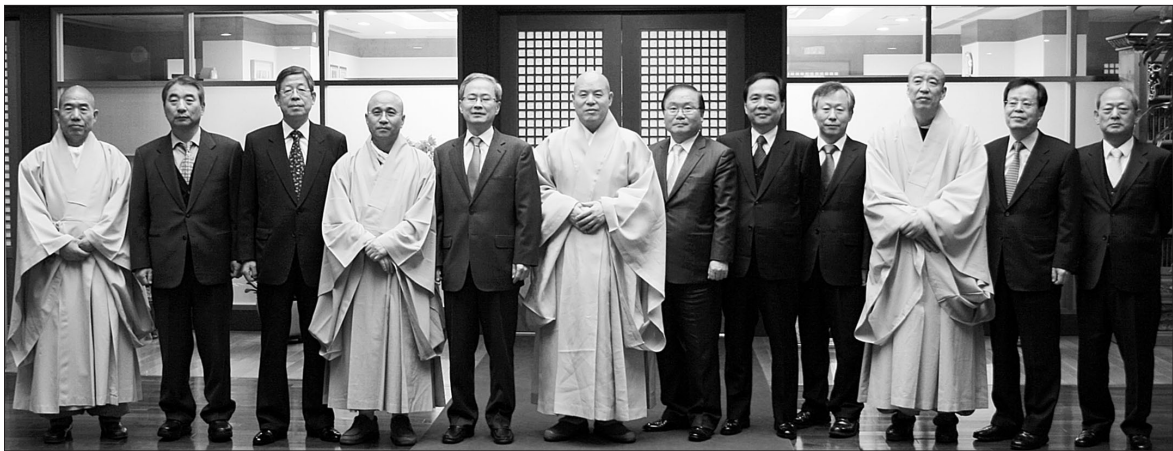
이번 종령은 지난해 5월1일 입법 예고된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귀속

‘승려 사유재산 종단 출연’ 종령 제정

상속으로 인한 ‘삼보정재 유실 예방’ 효과
종단소속 스님 ‘의무’ 면밀히 검토후 공포

에 관한 령’에 대한 법률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보완해 제정됐다. 또한 지난 2007년 9월5일 승려법 개정안의 시행 종령이기도 하다. 2007년 당시 법진스님을 비롯한 4명의 중앙총회의원이 관련 승려법 개정안을 신고·주지 임명·각급 승가고시 신청 시기에 개인 명의의 재산을 종단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다. ‘승려 사

유재산의 종단출연에 관한 령’의 제정으로 스님들의 입적 후 사회법(민법)에 따른 상속으로 삼보정재가 유실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출연된 재산은 승려노후복지 및 승가교육기금으로 활용하게 된다. 그동안 스님이 입적한 경우 속가의 형제나 조카 등 가족들이 민법을 내세워 삼보정재를 차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출가 후 불가피하게 생긴 정재(淨財)를 세속법에 앞세워 취득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취임이후 틈틈이 종로구 관내 인사들을 초청하고 있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20일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과 자리를 함께 했다. 왼쪽부터 중앙총회의장 보선스님, 김중대, 김희옥, 총무부장 영담스님, 이공현, 총무원장 자승스님, 이동흙, 민형기, 조대현, 교육원장 현응스님,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

총무원장-헌법재판관 ‘회동’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김희옥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과 점심공양을 함께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날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총무원장 취임 후 총무원이 위치한 종로구 관내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초대했다”면서 “가까운 곳에서 애쓰고 계신 헌법재판소 재판

관들을 모시게 됐다”고 인사했다. 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번 기회에 총무원장 스님도 법조계와 총무원 청사에도 들어와 보게 됐다”면서 “오찬에 초청해 위고맙다”고 화답했다. 이날 오찬은 선악으로 참석하지 못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제외하고, 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중대·민형기·이동흙·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이 함께 했다. 종단에서는 중앙총회의장 보선스님과 교육원장 현응스님, 총무부장 영담스님, 사서실장 경우스님이 배석했다. 서울시 종로구 재동 83번지에 위치한 헌법재판소는 총무원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다.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해 12월17일 종로구 관내에 있는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성균관, 대한성공회 등 주요 종교계 인사들을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갖기도 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종단 憲裁’ 법규위 역할 찾는다

위원장 성천스님, 전임 화범스님에 공로패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성천스님) 제61차 전체회의가 지난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관 2층 회의실에서 6명의 법규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는 김○○ 심판 청구의 건과 기타 안건으로 진행됐다. ‘김○○ 심판 청구’는 청구인이 이 회계원의 별반 정계를 받는 과정에서 내용을 통지받지 못했고, 이후 재심청구 요청을 했지만 접수 기록이 없어 소명의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내용이다. 청구인이 지난해 12월28일 법규위원회 사무처에 이번 심판 청구건을 접수해 이날 회의의 안건으로 채택됐다. 법규위원들은 이 안건에 대해 청구인의 소명을 청취한 후 질의응답과 참고인의 진술을 들었다. 이번 안건은 추후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오는 2월말 이전에 열릴 예정인 제62차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종도들 억울함 호소할 ‘마지막 보루’
“양심과 법에 따라 판결할 것” 다짐

다”고 밝혔다. 성천스님은 “사회는 3심제이지만, 우리 종단은 2심제”라며 “회계원에서 잘못된 정계를 내린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아직 법규위원회가 종단 내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종도들이 법규위원회의 기능을 바르게 이해하여 억울함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규위원회는 세속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종정(宗政)기구로 △종법의 종헌위배여부 심판 △종령 규칙과 행정처분의 종헌 종범

위배여부 심판 △중앙종무기관간(間), 중앙종무기관과 지방종무기관간, 지방종무기관간에 관한 심판을 다룬다. 중앙총회에서 선출되는 법규위원(9명)의 자격은 승남 25년, 연령 45세, 대덕(大德) 법계 이상의 법리(法理)에 밝은 비구로 되어 있다. 임기는 4년이다. 법규위원회에서 종범의 위헌 결정을 할 때는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종범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법규위원회 관련 법령은 종헌(제80조, 제81조)과 종범(법규위원회법)이다.

현행 법규위원회는 위원장 성천·성일(육전 서광사)·화범(남양주 흥국사)·지연(부산 장안사)·정호(제2교구본사 용주사)·법선(영축총림 통도사 옥련암)·경선(제14교구본사 범어사)·지산(성주 관운사)·무상(하남 광덕사)스님이다. 법규위원장 성천스님은 월남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제5교구본사 범주사 부주지, 제11교구본사 불국사 부주지, 총주 대원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2003년 3월부터 법규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스님들의 재산이 교단 밖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종령의 제정으로 이 같은 길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5월 입법예고 당시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는 “수행자의 출가정신을 전명하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구체적인 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과제도 있다. 사회법적인 효력과 실제적인 실효성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된 종령이 실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총무원은 총무원회에서 통과된 이번 종령에 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 면밀히 점검한 후 정식 공포할 예정이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종무원과 소통
‘이메일’ 개설

총무원장 자승스님

지난 19일 오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단체 종무원 조화에서 ‘소통과 화합’을 강조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종무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장을 만들었다.

총무원장 스님은 조화가 끝난 직후 중앙종무기관에 근무하는 종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종단 내부 전산망(세피소)에 이메일 계정을 개설했다. 이 같은 사실은 같은 날 오후 내부 전산망을 통해 사서실이 전 종무원에게 공지하면서 알려졌다. 사서실은 공지 메일을 통해 “(총무원장 스님 이) 모든 종무원이 우리라는 소통 구조 안에서 화합하고 함께 하길 당부했다”면서 “종무원의 업무에 대한 건의와 불교종흥에 대한 의견을 서슴없이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19일 조화에서 “불교종흥의 시작은 종무원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면서 종무원의 적극적인 자세와 역할을 당부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이메일 계정 개설은 종무원의 의견을 가감없이 청취해 총무원부터 ‘소통과 화합’의 모범을 보이겠다는 총무원장 스님의 의지로 보인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아이티 성금’ <1면서 계속>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금선사와 같은 사세가 작은 사찰에서 이렇게 큰 마음을 내어 주셔서 정말 고맙다”며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비나눔을 실천하시는 스님들이 계셔서 마음이 좋다”면서 거듭 감사인사를 건넸다. 아이티 국민들을 향한 애도와 함께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21일 사단법인 한일 불교문화교류협회의 회장에서 초대 받은 후 인사말을 통해 아이티 돕기에 불교계가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총무원장 스님은 “엄청난 재난을 당해 고통 속에 있는 아이티 지진참사를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부처님의 자비나상으로 그들에게 지원과 용기를 북돋아 주자”고 밝혔다. 또한 각 종단에서도 아이티 돕기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출정을 요청했다. 한편 대전비구니청림회(회장 효경스님)도 지난 22일 총남대 정심화회에서 열린 성도절 회회에서 강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아이티를 돕기 위해 탁발행사를 가졌다. 아름다운동행측은 당분간 모연에만 전념하고 아이티 지원방식과 지원시기 등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다. 아이티 관련 주무부서인 총무원 사회부는 아이티 현지에서 지원단을 파견하는 사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진참사 아이티에 자비의 손길을!

- 성금모금 명단(무순)

△석불사(50만원) △수덕사(1000만원) △봉은사(1000만원) △조계종 호법부(100만원) △무기명(1000만원) △금선사(500만원) △선본사(2000만원) △조계사(1000만원) △삼복사(50만원) △청광사(30만원) △통도사(3000만원) △여래사(1000만원) △구룡사(1000만원) △안정아(1만원) △좋은인연(3만5000원) △덕상자(5만원) △강정은(1만원) △아이티안정(50만원) △하심(3만원) △김성수(5만원) △김기하(5만원) △최정선(5만원) △임부재(3만원) △정이교(5만원) △전수원(5만원) △김은하(3만원) △관음주(1만원) △최재경(3만원) △정동근(1만원) △최미자(5만원) △김미현(1만원) △전종현(1만원) △신옥선(30만원) △안현아(1만원) △이호재(3만원) △차인숙(2만원) △이준희(5만원) △고미경(1만원) △보리월(2만원) △최동열(3000원) △이건주(5만원) △나무원해보살(2만원) △성기봉(1만원) △차범륜(2만원) △김진훈(5만원) △박소용(1만원) △고은별(1만원) △김윤정(1만원) △신예지(1만원) △최말선(6만원) △이선미(1만2000원) △정암사주리(5만원) △경인숙(1만원) △이혜원(3만원) △박영희(1만원) △김정희(5만원) △안재영(10만원) △이두호(5만원) △이병진(10만원) △황선재(1만원) △혜초임선희(10만원) △강지연(1만원) △류지선(20만원) △강희영(10만원) △최종찬(2000원) △김경진(5만원) △서지애(4

만원) △임한영(1만원) △기상학(1만원) △강세환(1만원) △이은주(12만원) △이동엽(5만원) △합영숙(1만원) △조동현(3만원) △배미경(3만원) △류민우(10만원) △뽏다와함께(1만원) △유순연(5만원) △박영자(1만원) △윤영희(30만원) △김경숙(10만원) △정성원(1만원) △박규범(3만원) △정정완(3만원) △김은희(3만원) △김찬수(2만원) △김창국(2만원) △정연실(2만5000원) △김기범(3만7000원) △여예나(8만7000원) △황재연(20만원) △황말옥(5만원) △민경호(10만원) △이승남(100만원) △부엔리브로(16만5000원) △이문해(1만원) △이은희(3만원) △최문정(5만원) △임명희(10만원) △송정원(5만원) △송정현(5만원) △오석균(5만원) △이영리(10만원) △혜원(10만원) △지우성(5만원) △송병순(10만원) △이선주(3만원) △윤영희(50만원) △영천암신도(10만원) △기명희(10만원) △신지유(5만원) △조선의(5만원) △이순희(10만원) △전명국(1만원) △관음주(10만원) △김민규(1만원) △김영준(1만3500원) △강은주(1만3500원) △김이정(1만3500원) △김세웅(1만3500원) △이형원(20만원) △이만덕화(5만원) △최순남(5만원) △김기욱(3만7000원) △김민지(3만원) △김순자(5만원) △조미란(5만원) △박무숙(1만원) △공주불자(3만원) △김덕원(5만원) △장호성(1만원) △염화실(5만원) △이경숙(5만원) △정복주(1만원) △한상우(5만원) △정준주(1만원)

총 1억2542만7000원 (1월21일 오후4시 현재)

